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자료</h1>	
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		배포일시	2019. 12. 30(월) 총 2매(본문2)
담당부서	국토교통부	주택정비과	·과장 이재평, 서기관 박진호, 사무관 이중곤 ·☎ (044) 201-3384, 3387
보도일시		2019년 12월 31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31.(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체계 구축으로 주택시장 관리역량 강화 2천여개 정비사업 관련정보 체계화를 통해 활용가치 제고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재개발·재건축·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‘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’을 12월 30일 구축하였다.

<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개요 >

- ▶ (개념) 국내 최초 전국 2,000여 개 정비구역의 전수조사 및 공적서류 수집을 통해 구역별 현황 등 다양한 정보와 통계, 편익기능을 관리·제공
- ▶ (주요기능) 정비구역 조회 및 구역별 정보제공, 공공지원 민간임대 현황 등

- ‘도시정비사업 종합 정보시스템’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시행되는 재개발·재건축·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것으로,
 - 이를 통해 그간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사업주체인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며 따라 발생했던 정보의 부정확성과 정보수준의 차이로 인한 사업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,
 -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던 자료 취합과 분석과정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.

- 이번에 도입된 ‘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’은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감정원이 일제조사(19.8~12월)를 통해 시의성 있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기관의 참여를 통해 구축된 것으로,
 - 지리정보시스템(GIS,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)을 기반으로 정비구역, 구역별 기초정보, 추진단계, 사업계획, 조합운영현황 등 정비사업 관련 80여 가지에 이르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고 있어, 관련 정보의 분석과 활용가치를 극대화 시켰다.

-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지속가능한 정보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자료조사·검증작업의 체계화,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, 다양한 신규통계 및 인포그래픽 구현 등을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
 -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준과 범위를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대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.

-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“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번에 구축한 정보시스템이 정부정책의 품질향상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박진호 서기관, 이종곤 사무관(☎ 044-201-3384, 338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